

이달의 초점

2023년 노인실태조사와 노년기 삶의 특성

노인의 경제생활 특성과 변화: 일과 소득

|황남희

노인의 여가 및 정보화 현황

|김세진

노인의 건강과 돌봄

|강은내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이선희

노인의 생활환경과 노후생활 인식

|주보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¹⁾

Familial and Social Relationships among Older Koreans

이선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이 글은 한국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 현황을 파악하여 노인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부족한 가족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2023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가족 및 사회적 관계망의 형태 및 규모(구조적 차원)와 접촉 실태, 지원 교환(기능적 차원)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노인 단독가구의 고착화, 혈연 중심 관계망의 축소와 동년배 중심 관계망의 강화, 사회적 고립의 위험집단 등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은 노인에게 대한 정책적 관심 강화, 동년배와의 관계 강화를 위한 지원, 비공식적 돌봄을 보완할 수 있는 기제 다양화 등을 제안하였다.

1 들어가며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은 전 생애를 통해 형성 및 유지되는 결과물로, 단순한 교류의 측면을 넘어 정서적 지지와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같은 측면에서 노년기 삶의 질 유지에서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사회적 관계망을 어떻게 간주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나, 대체로 구조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논의가 일반적이다. 구조적 측면은 사회적 관계망의 구성 요소나 형태와 관련되며, 관계망의 크기나 밀도 등 양적인 특성을 포괄한다. 기능적 측면은 관계망이 노인의 삶에서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하는가

1) 이 글은 강은나, 김혜수, 정찬우, 김세진, 이선희, 주보혜, 황남희, 김경래, 이혜정, 최경덕. (2023).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5장과 6장의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작성하였다.

와 관련되며, 관계망의 질적인 특성과 부합한다. 따라서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위해서는 구조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기반하여 가족을 포함한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의 구조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에 대해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어떠한 형태로 유지되는지, 주요한 사회적 관계망과의 교류 형태는 어떠한지, 아울러 사회적 관계망이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일련의 분석 결과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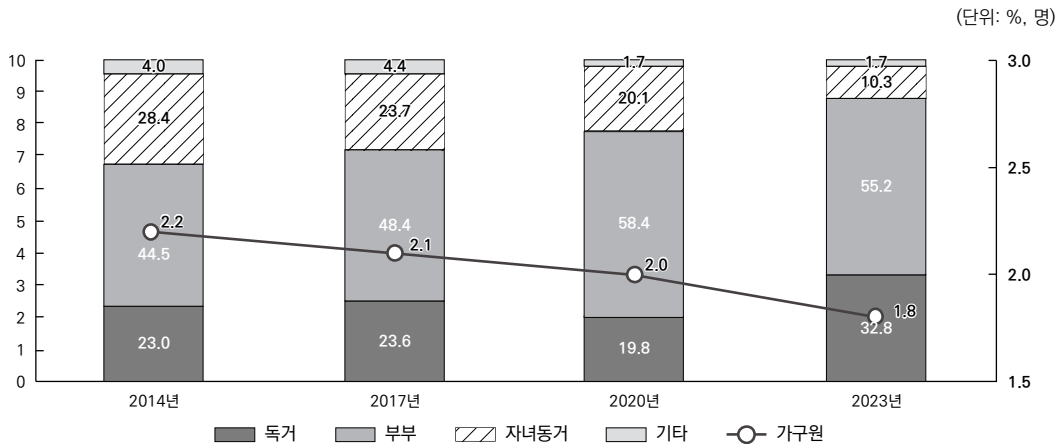
로서 의의를 지닐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노인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2 노인의 가구 형태와 노년기의 주요한 관계망

가. 가구 형태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 노인의 가구 형태 역시 변화하고 있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독거가구는 32.8%, 부부가구는 55.2%로 노인만으로 구성된 단독가구가 전체의 88%를 차지한다. 한편 자녀

[그림 1] 노인의 가구 형태 변화(2014~2023년)



주: 1) 자료를 바탕으로 도식화함.
2)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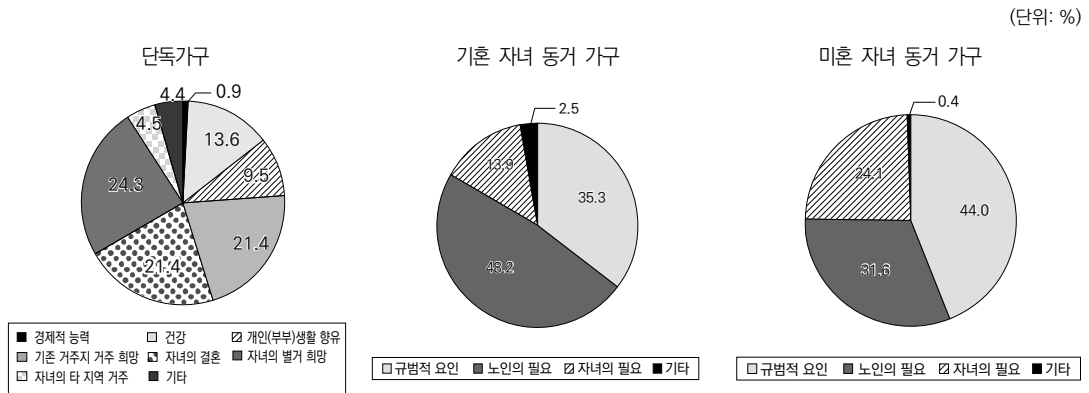
- 출처: 1)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정경희 외, 2011,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99의 <표 II-1-1>.
2)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정경희 외, 2014,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01의 <표 3-2>.
3)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정경희 외, 2017,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68의 <표 4-2>.
4)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이윤경 외, 2020,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27의 <표 3-2>.
5)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 강은나 외, 2023,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71의 <표 1-21>.

동거가구는 10.3%, 기타가구는 1.7%로 나타났다. 2020년 조사와 비교할 때 단독가구(독거+부부) 비율이 78.2%에서 88%로 급증하였는데, 이는 단독가구 중에서도 독거가구의 비율이 이전 연도 대비 13% 증가한 결과이다. 이 같은 독거가구의 증가는 평균 자녀 수 감소 등 가족 구성 요인의 변화가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 역시 2020년 조사 결과(20.1%)와 비교할 때 약 2분의 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이전 노인세대와는 다른 특성을 보이는 베이비부머의 노년층 진입과 전통적 부양 가치관의 약화가 지속되는 것에서 연유한 결과로 보인다.

노인의 다양한 필요와 상황을 이해하기 위하여 가구 형태별로 현재의 가구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단독가구를 선택한 이유로는 자녀의 결혼과 같은 가족 구성원 변화가 24.3%로 주된 이유를 차지한다. 개인 또는 부부 생활을 향유하기 위해서와 살고 있는 곳에서 떠나기 싫어서가 각각 21.4%, 경제적 능력이 있어서 13.6%, 건강해서 9.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단독가구 선택 시 노인의 개인적 차원 욕구나 특성(경제적 능력, 건강 상태, 개인·부부 생활 향유 욕구, 익숙한 지역 선호)에 기인한 응답이 65.9%에 달하며, 자녀의 상황(결혼, 직업, 학업 등)에 기반한 이유는 약 3분의 1을 차지하였다. 이는 2020년 조사 결과(이윤경 외, 2020)와도 유사한 경향으로, 노인의 자립성에 의해 단독가구를 선택한 비율이 여전히 높게 나타난다.

[그림 2] 단독가구 및 (기혼 및 미혼) 자녀 동거 가구 형성 이유(2023년)



주: 1) 자료를 바탕으로 도식화함.
 2) 규범적 요인은 자녀와 사는 것이 당연해서를 의미. 노인의 필요는 외로워서, 본인 또는 배우자의 돌봄이 필요해서, 노인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서 등을 의미. 자녀의 필요는 자녀의 경제적 능력 부족, 자녀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등을 의미함.
 3)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출처: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 강은나 외, 2023,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64의 <표 5-8>, p. 270의 <표 5-10>, p. 270의 <표 5-10>.

반면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현재의 가구 형태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살펴본 결과 자녀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당연해서와 같은 규범적 당위성에 의한 동거 비율(기혼 35.3%, 미혼 44%)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녀동거가구의 경우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 또는 규범적 기대가 여전히 강하게 작용함을 시사하는 결과라 하겠다. 차순위 응답에서는 기혼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경우 외로워서 17%, 본인 또는 배우자를 돌봐 줄 사람이 필요해서 16.7%, 노인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서 14.5%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규범적 요인 이외에도 노인의 개인적 필요에 따른 자녀와의 동거 선택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미혼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경우 차순위 응답으로 자녀의 경제적 능력 부족 14.8%, 단독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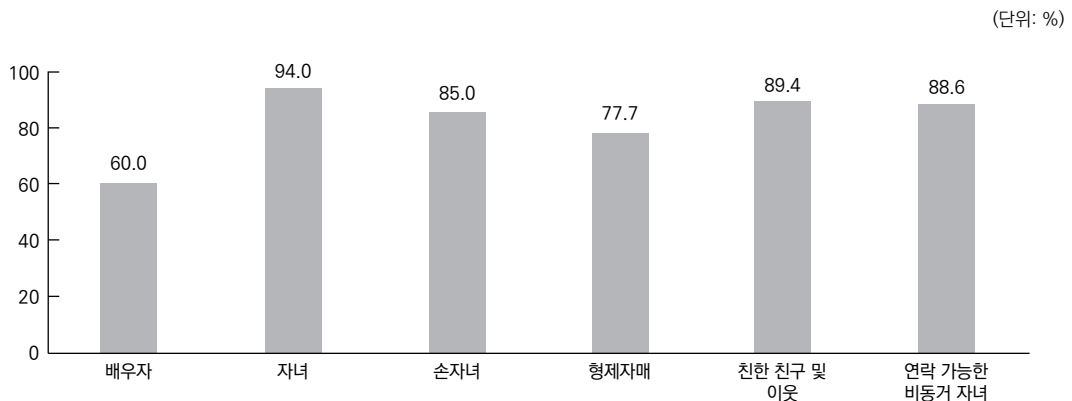
의 외로움 14.1%, 본인의 경제적 능력 부족 10.4% 등으로 응답하였다. 기혼 자녀 동거가구와 비교 시 노인의 필요에 따른 이유뿐 아니라 자녀의 상황적 요인에 따른 동거 선택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제시되고 있다. 기혼 자녀 동거 가구와 비교할 때 미혼 자녀 동거 가구의 경우 노인과 자녀 간 상호 지원 교환의 필요성에 의한 동거 양상이 보다 다양화, 세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 관계망의 규모

1) 사회적 관계망 규모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규모를 자녀 및 손자녀, 형제자매의 혈연관계, 친구 및 이웃, 지인 등의 비혈연관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그림 3] 노인의 주요한 사회적 관계망 보유율 및 규모(2023년)



주: 1) 자료를 바탕으로 도식화함.

2)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출처: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 강은나 외, 2023,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71의 <표 1-21>, p. 250의 <표 5-1>.

노인의 60.0%는 배우자가 있었는데, 생존 자녀가 있는 노인은 전체의 94.0%, 손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노인은 85.0%였다. 평균 자녀 수는 2.7명, 손자녀 수는 4.4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의 77.7%는 평균 2.8명의 형제자매가 있으며, 89.4%는 평균 3.7명의 친구나 이웃, 지인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2020년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관계망 보유 비율은 감소하였으나, 규모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친구 및 이웃, 지인 등의 동년배 관계망의 규모 및 비중에서 이 같은 변화가 두드러진다. 동년배의 경우 비슷한 생애 경험 및 시대적 배경을 공유하기 때문에 서로의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에서 중요한 순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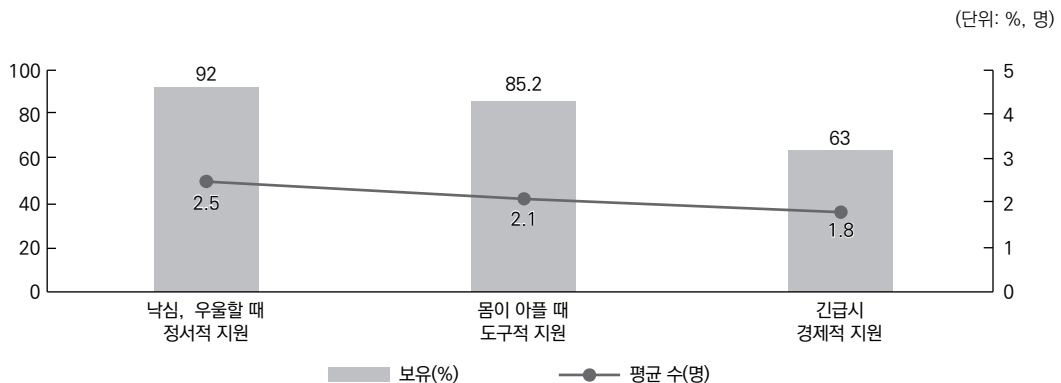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비동거 자녀가 있는 노인 중 88.6%

는 필요시 연락할 수 있는 자녀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 규모는 약 2.6명이다. 단 전체 노인 중 동거 자녀가 없고 비동거 자녀와도 연락이 어렵다고 응답한 노인이 9.2%로 나타났는데, 조사 대상 노인의 약 10분의 1이 자녀의 지원이 어려운 상태임을 시사한다.

2)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의 규모

노인이 정서적, 도구적, 경제적 측면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과 규모에 대해 파악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서적 측면에서는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위로와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도구적 측면에서는 몸이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있는지를, 경제적 측면에서는 긴급한 상황에서 돈을 빌릴 사

[그림 4]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의 규모(2023년)



주: 1) 자료를 바탕으로 도식화함.

2)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출처: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 강은나 외, 2023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54의 <표 5-3>, p. 256의 <표 5-4>, p. 258의 <표 5-5>.

람이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이는 일상생활 또는 갑작스런 상황에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지원망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볼 수 있다.

그 결과 정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관계망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2%, 도구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관계망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5.2%,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관계망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3%로 나타났다. 관계망이 있는 경우 그 규모는 정서적 지원 평균 2.5명, 도구적 지원 평균 2.1명, 경제적 지원 평균 1.8명 순으로 나타나 관계망 보유율과 지원 규모가 상응하였다. 한편 어떠한 상황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이 부재한 노인은 전체의 6.6%로 나타나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일련의 분석 결과는 제공 가능한 지원 유형과 사회적 관계망의 강도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나아가 앞서 신뢰할 수 있는 친구 및 이웃, 지인의 규모는 평균 3.7명으로 응답하였으나, 실질적인 지원 필요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망의 규모는 약 2명 내외로 좁혀진다. 이는 친밀감과 일상적인 교류를 넘어 실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망의 규모가 더 제한적임을 의미한다.

3 노년기 주요한 관계망과의 접촉 및 지원

사회적 관계망의 기능적 차원은 접촉 실태와 지

원 교환의 두 축에서 살펴보았다. 접촉 실태는 자녀, 친인척, 친구 및 이웃을 중심으로 한 왕래, 연락 빈도를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지원 교환은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자원의 흐름이 어떠한가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배우자, 동거 및 비동거 자녀, 부모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노인이 가정 내에서 담당하는 역할 변화과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 영역은 고민 상담 등의 정서적 지원, 청소, 식사 준비 등의 도구적 지원, 신체 수발 등의 돌봄 지원, 경제적 지원으로 구분되는데, 배우자는 경제 공동체라는 측면에서 경제적 지원에 대한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가. 접촉 실태

우선 떨어져 사는 자녀²⁾와의 접촉 실태를 살펴본 결과 주1회 이상 왕래하는 비율은 22.7%였으며, 연락을 주고받는 비율은 64.9%였다. 2020년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이윤경 외, 2020) 대면보다는 비대면(연락) 교류가 더 빈번히 이루어지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반면에 연간 거의 왕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6.6%, 연락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8.4%로, 조사 대상의 약 3분의 1은 자녀와의 교류가 원활치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손자녀와의 왕래 빈도는 월 1회 미만인

2) 떨어져 사는 자녀 중 접촉이 가장 많은 자녀를 기준으로 한 응답이다.

57.5%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주1회 이상 왕래하는 비율은 6.5%에 불과하여 정기적인 교류 비율이 비동거 자녀에 비해 낮다. 연락 빈도 역시 월 1회 미만이 43.1%로 가장 높고, 주 1회 이상 연락하는 비율은 15.1%이다. 왕래 빈도와 비교해 연락 빈도가 높긴 하나, 대체로 월 1회 이상(46.8%) 연락하는 상황으로 자녀와의 교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교류 양상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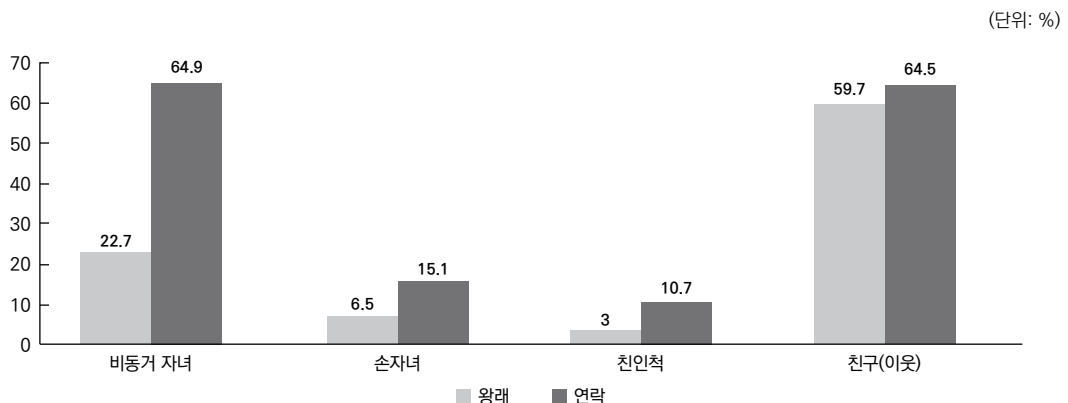
형제자매 및 친인척과의 왕래 빈도는 월 1회 미만이 56.8%를 차지하며, 상당수(21.9%)는 전혀 만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주로 명절, 특별한 가족 행사에 한해 제한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짐을 시사한다. 주 1회 이상 왕래한다는 비율은 3%에 불과하다. 연락 빈도는 월 1회 미만이

40.3%, 월 1회 17.3%, 주 1회 이상 10.7%로 왕래 빈도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수준이나, 자녀와의 교류 빈도와 비해서는 현저히 낮다.

마지막으로 친구 및 이웃, 지인과의 왕래는 노인의 14.4%가 거의 매일(주 4회 이상) 하며, 59.7%는 주 1회 이상 만남을 유지하였다. 연락 빈도 역시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데,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비율이 64.5%로 왕래 빈도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이다.

종합할 때 사회적 관계망에서 친구 및 이웃, 지인 같은 동년배와의 교류가 활발한 경향을 보인다. 이는 연령의 유사성으로 인해 공통의 가치, 경험 등을 공유할 뿐 아니라 평등한 관계 형성에서 오는 상호 이해 및 지원의 유인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그림 5] 가족 및 사회적 관계와의 왕래 및 연락 빈도(주 1회 이상 기준)



주: 1) 자료를 바탕으로 도식화함.

2)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출처: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 강은나 외, 2023,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79의 <표 5-14>, p. 281의 <표 5-15>, p. 288의 <표 5-18>, p. 290의 <표 5-19>, p. 292의 <표 5-20>, p. 294의 <표 5-21>.

보인다(이지현, 한경혜, 2012). 혈연관계에서는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및 친인척 순으로 교류가 활발하다. 손자녀와의 관계는 대체로 자녀를 매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접적인 상호작용은 적은 편이다. 형제자매 및 친인척은 동년배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친구 및 이웃, 지인 관계망과 비교할 때 혈연관계에서 오는 역할과 책임 등의 위계적 요인 등으로 인해 일상적 필요를 충족할 만큼의 긴밀한 상호작용은 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접촉 방식은 관계망 유형과 관계없이 비대면 연락이 대면 양태보다 더 빈번하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나. 가족과의 지원 교환

배우자, 자녀, 부모와의 지원 교환을 정서적, 도구적, 돌봄,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배우자가 있는 노인(60.0%)의 88.9%는 배우자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고, 84.6%는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 식사 준비 등 도구적 지원의 경우 수혜율은 75.5%, 제공률은 69.1%였으며, 간병 등 돌봄 지원의 수혜율은 58.1%, 제공률은 55.1%로 배우자 간 수혜·제공 비율이 유사한 수준이다. 단 도구적 지원 및 돌봄 지원은 배우자 간 수혜·제공에서 성별 차이가 발견되는데, 남자 노인은 배우자로부터 수혜를 받는 비율이 여자 노인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난다.

자녀와의 지원 교환에서 동거 자녀가 있는 노인(10.2%)의 91.0%는 자녀에게 정서적 지원을 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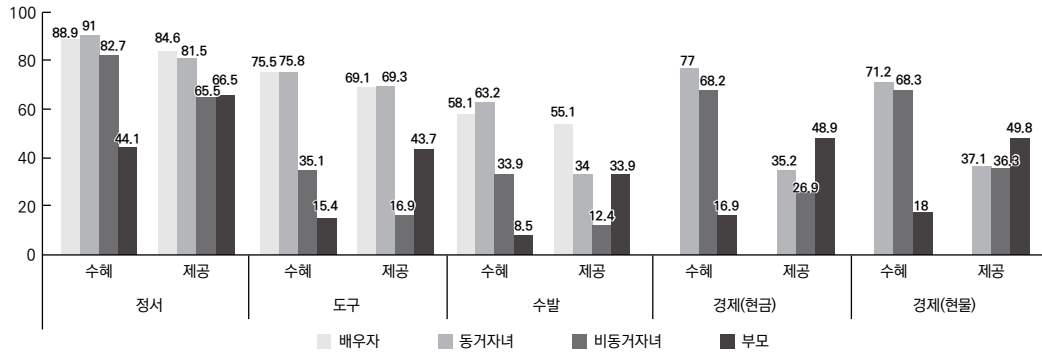
고, 81.5%는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도구적 지원 교환의 수혜율은 75.8%, 제공률은 69.3%이며, 돌봄 지원 교환의 수혜율은 63.2%, 제공률은 34.0%로 나타났다. 경제적 지원의 경우 현금과 현물 모두 노인이 동거 자녀로부터 받는 비율(현금 77.0%, 현물 71.2%)이 제공하는 비율(현금 35.2%, 현물 37.1%)에 비해 2배가량 높았다.

비동거 자녀가 있는 노인(91.9%)의 82.7%는 자녀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으며, 65.5%는 자녀에게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도구적 지원 교환 수혜율은 35.1%, 제공률은 16.9%이며, 돌봄 지원 교환의 수혜율은 33.9%, 제공률은 12.4%로 나타났다. 경제적 지원 교환 역시 동거 자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금과 현물 모두 노인이 비동거 자녀로부터 받는 비율(현금 68.2%, 현물 68.3%)이 제공하는 비율(현금 26.9%, 현물 36.3%)에 비해 높다.

부모·자녀 간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와의 지원 교환에서는 자녀로부터 지원을 받는 수혜율이 모든 유형에서 높게 나타난다. 특히 병원 동행 등의 돌봄 지원에서 이 같은 특성이 두드러지는데, 경제적 지원에서도 자녀에 대한 의존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자녀와의 동거 특성을 중심으로 볼 때, 부모·자녀 간 지원 수준은 동거 자녀가 비동거 자녀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이는 부모·자녀 간 동거에 따른 물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비동거 자녀에 비해 상시적인 지원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도구적 지원이나 돌봄 지원에서 이 같은 경향이 두드

[그림 6] 노인·가족 간 지원 교환 양상(2023년)

(단위: %)



주: 1) 자료를 바탕으로 도식화함.

2)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출처: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 강은나 외, 2023,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원자료를 재분석하여 도식화함.

러진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있는 노인(3.8%)의 44.1%는 부모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으며, 66.5%는 부모에게 정서적 지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구적 지원 교환의 수혜율은 15.4%이고, 제공률은 43.7%이며, 돌봄 지원 교환의 수혜율은 8.5%, 제공률은 33.9%로 나타났다. 경제적 지원의 경우 현금과 현물 모두 부모에게 받는 비율(현금 16.9%, 현물 18.0%)이 부모에게 제공하는 비율(현금 48.9%, 현물 49.8%)의 3분의 1 수준이다. 자녀와의 지원 교환과 달리 노인이 그들의 부모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원 교환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4 나가며

이 글은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을 구조적 측면(형태 및 규모)과 기능적 측면(접촉 실태, 지원 교환)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2023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 가구의 88.0%가 독거 및 부부 가구로 구성된 단독가구였으며,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는 10.3%에 불과했다. 이전 조사 결과(2020년)와 비교했을 때 독거가구 비율의 급증과 자녀동거가구 비율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 같은 변화는 평균 자녀 수 감소 등 가족 구성 요인의 변화와 베이비붐세대의 노년층 진입으로 인한 전통적 부양 가치관의 약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나아가 단독가구의 경우 노인 본인의 경제력, 건

강 상태, 개인 또는 부부 생활 향유와 같은 개인적 욕구나 특성 때문에 현재의 가구를 선택했다는 응답이 약 3분의 2에 달했다. 이는 노인의 자립성 기인한 단독가구 선택 비율이 여전히 높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반면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는 자녀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규범적 요인에 의한 선택률이 여전히 높다. 다만 차순위 응답에서는 기혼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의 경우 노인의 필요에 의한 선택이 높은 반면 미혼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는 노인·자녀 간 상호 지원 교환의 필요에 따른 동거 양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일련의 결과는 노인의 가구 구조 변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며, 가구 형태에 따른 지원의 필요성이 다양해져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노인의 가구구조가 보다 기능적이고 실제적인 필요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다음으로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규모를 살펴보면 이전 조사와 비교하여 혈연 및 비혈연 관계망 모두 보유율은 감소했지만 규모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년배 관계망의 규모와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동년배 관계는 자발적으로 형성된 관계로, 상호 간 유사한 관심사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노년기 사회적 관계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자녀 수 감소 등과 같은 혈연 관계망의 축소에 대한 보완적 기제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의 규모는 정서적 지원, 도구적 지원, 경제적 지원 순으로 나타났는데, 관계망의 크기는 평균 2명

내외였다. 이 같은 결과는 지원 유형과 사회적 관계망의 강도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신뢰할 수 있는 동년배 관계의 규모에 비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관계망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앞서 살펴본 사회적 관계망의 규모가 친목에 기반한 일상적인 교류 중심의 관계망 규모를 뜻한다면 후자의 관계망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관계망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인이 다양한 상황에서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망이 협소함을 의미하며,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부분이라 하겠다. 특히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몸이 아플 때, 또는 갑자기 큰돈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이 부재한 노인의 비율이 6.6%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의 사회적 고립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 같은 양상은 관계망과의 접촉 실태와도 결부된다. 혈연관계에서 자녀와의 교류는 활발하지만, 형제자매 및 친인척, 손자녀와의 교류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다. 반면 동년배와의 교류는 적극적인 양상이다. 또한 접촉 방법에서는 관계망 유형과 상관없이 비대면 연락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는 다양한 연락 수단이 보편화된 것과 더불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연락이 안정적인 소통 방식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족과의 지원 교환은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와 상호 간의 지원 필요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분석 결과 노인·가족 간 지원 교환은 배우자, 동거 자

녀, 비동거 자녀, 부모 순으로 활발한 양상을 나타낸다. 배우자와의 지원 교환은 다방면에서 상호 호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도구적 지원에서는 여전히 여성 노인의 역할이 크다. 자녀와의 지원 교환은 대체로 자녀에게 도움을 받는 구조로 이루어지며, 동거 자녀일수록 이 같은 경향이 두드러진다. 부모와의 지원 교환은 반대로 노인이 부모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방식이 보편적이다.

현재까지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의 구조적, 기능적 측면에서 나타난 주요한 결과에 대해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고립의 위험이 높은 노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지속되어야 한다. 분석 결과 동거 자녀가 없고 비동거 자녀와도 연락이 어렵다고 응답한 노인이 전체 조사 대상의 약 10분의 1을 차지하였다. 이들은 도움 필요시 적절한 지원이 어려운 상황을 내포한다. 따라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들이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관련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방식의 안부 확인 및 응급안전서비스를 비롯하여 정기성을 띤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고립을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동년배와의 관계 강화를 위한 지원이 다각화되어야 한다. 최근 들어 노년층의 사회적 관계가 비공식 관계를 중심으로 강화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함

께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와 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비대면 소통 방식 확대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방식을 강화하여야 한다. 노년층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비공식적 돌봄을 보완할 수 있는 기제가 다양화되어야 한다. 단독가구뿐만 아니라 필요시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망이 협소한 노인들의 규모도 증가할 것이다. 자기관리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고 장기요양보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공적 자원과 지역사회 민간 자원들을 균형적으로 활용하여 비공식적 돌봄을 보완하는 기제를 보다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 ㉞

참고문헌

- 강은나, 김혜수, 정찬우, 김세진, 이선희, 주보혜, 황남희, 김경래, 이혜정, 최경덕. (2023). **2023년도 노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윤경, 김세진, 황남희, 임정미, 주보혜, 남궁은하, 이선희, 정경희, 강은나, 김경래. (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지현, 한경혜. (2012). 예비노인의 친구관계망 특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2(2). pp. 170-205.
-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재호, 선우덕, 오미애, 이윤경, 황남희, 김경래, 오신휘, 박보미, 신현구, 이금룡. (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경래, 이윤경, 오미애, 황남희, 김세진, 이선희, 이석구, 홍송이. (2017). **2017**

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경희, 오영희, 이윤경, 손창균, 박보미, 이수연, 이지현, 권중돈, 김수봉, 이소정, 이용식, 이윤환, 최성재, 김소영. (2011). **2011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Familial and Social Relationships among Older Koreans

Lee, Sun He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urrent state of familial and social relationships among the elderly in Korea and propose strategies to address ongoing changes. Utilizing data from the 2023 National Survey of Older Koreans,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we analyzed the structural aspects (forms and sizes) of family and social networks, as well as the functional aspects (contact patterns and support exchanges). The analysis identified trends such as the entrenchment of single-person elderly households, the contraction of kin-centered networks, the expansion of peer-centered networks, and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s at risk of social isolation. Based on these findings, we recommend strengthening policy attention for elderly individuals at high risk of social isolation, enhancing support for peer relationships, and diversifying mechanisms to complement informal caregiving.